명품 '담양 봉산딸기' 홍콩 갑니다

싱가폴·인니 등 동남아에 30여t 수출

쑥·미나리즙 비료…과육 단단·향 진해

담양 봉산농협 딸기공선출하회 회원들이 동남아시아 수출길에 오르는 '봉산 쑥·미나리를 먹인 딸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국내에서 '명품 딸기'로 인기가 높은 담양 봉산딸기가 동남아시아인들의 입맛을 녹이러 홍콩에 간다.

23일 담양 봉산농협(조합장 진재명)에 따르면 봉산농협 딸기공선출하회가 재배하는 '봉산 쑥·미나리즙을 먹인 딸기(수출명 담양딸기)'가 지난 18일 홍콩과 싱가폴·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수출길에 올랐다. 봉산딸기는 오는 4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수출길에 하게 된다.

이번 수출 물량은 30여t 3억2000여만 원어치로, 가격은 1봉지(280g)당 3000원 정도다. 국내 판매가격보다 20% 가량 높다.

이 딸기는 수출의 특성상 장기간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과육이 단단한 '육보' 품종을 재배했다.

이 딸기는 해마다 단오 즈음에 인근 산과 들에서 쑥과 미나리를 채취해 흑설탕을 넣어 발효시킨 즙을 2~3일에 한 번씩 물에 섞어서 준다. 그래서 '쑥과 미나리즙을 먹인 딸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과육이 단단한데다 향이 진하고 딸기 고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만큼 국내에서 인기가 높다.

또 담양지역은 딸기 재배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과 기후의 영향으로 전국 딸기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당도와 색도가 탁월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딸기 지리적 표시' 등록과 국제표준규격 ISO 9001(품질경영)과 ISO 14001(환경경영)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김정오 경제총괄팀장은 "봉산딸기 동남아시아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게 된다"며 "담양딸기는 물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光銀 노사 '완전 정상화' 합의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과 광주은행노동조합(위원장 이상채)은 주주총회와 송기진 은행장 취임식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16층 이사회실에서 긴급 노사협의회를 갖고 노·사관계를 완전 정상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열린 광주은행 노사협의회에서 광주은행 노사는 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그동안 경직되었던 관계를 해소하고 노사양측이 상호 신뢰하에 대화와 소통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광주은행 노사는 그동안 은행장 선임문제로 노사간의 갈등이 외부로 비쳐져 고객들의 광주은행에 대한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지난 14일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이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박종광 광주은행 업무지원본부장은 "이번 노사합의를 통해 광주은행 노사관계가 완전 정상화 되어 향후 광주은행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방에도 봄꽃이 활짝~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고광후) 8층 주방매장에는 새봄을 맞아 화사한 꽃무늬부터 과일무늬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식기류가 전시 돼 주부들을 유혹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아시아나항공 日지진 구호기금 모금

전 노선 기내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아시아나항공은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 재난 지역 복구와 피해 아동 구호를 위해 취항 전 노선 기내에서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그간 유니세프와 함께 해온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의 하나로, 걷힌 기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유니세프 일본위원회에 전달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긴급 구호'라 적힌 모금 봉투를 제작하고 '기부금 전액이 일본 긴급 구호에 사용된다'는 기내 방송을 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담요와 생수, 컵라면 등 구호품 전달을 시작으로 구호금 6천만엔 전달, 구호물자 수송 등의 지원을 해왔다. /연합뉴스

지역 금융기관 수신 증가폭 확대

1월중 광주·전남지역의 금융기관의 예금이 전달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1년 1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수신은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이 모두 증가해 전달(+2830억원→+4475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여신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이 감소로 전환돼 전달(-561억원→-571억원)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수신은 전달(-2020억원→+2647억원)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中企에 1조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의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1조원 규모를 집중적으로 신용보증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북 지역 해당 기업들은 보증한도와 보증료 우대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통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현재까지 지역 내 수출 및 녹색부문 중소기업에 대해 모두 1362억원을 지원했다.

남용우 신보 호남영업본부장은 "앞으로 해당 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수출 및 녹색성장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이패드2' 내달 상륙…이통사 경쟁 가열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2가 다음 달 한국에 정식으로 판매된다.

애플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2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4월 아이패드2의 모든 모델을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아이패드2를 도입하기 위한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도 본격화했다.

KT는 "다음 달 중으로 아이패드2의 와이파이 전용 모델과 와이파이·3G 겸용 모델, 아이패드2 요금제를 공식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SK텔레콤도 아이패드2를 출시한다고 선언했다.

SK텔레콤은 "아이패드2 외에도 다음 달 모토로라의 줌(Xoom)을 출시하고, 미국에서 공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과 8.9, LG전자의 옵티머스패드도 4~5월 순차적으로 출시해 태블릿PC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태블릿PC들의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애플은 오는 25일부터 25개 국가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아이패드2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11일 미국을 시작으로 오는 25일 최소 26개 국가에서 동시에 아이패드2를 시판할 예정이었으나,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본 일본을 이들 국가에서 제외했다.

홈페이지에서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는 "경쟁사들이 여전히 기존 아이패드를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아이패드2로 또 한 번 판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아이패드2는 두께가 8.8㎜로 첫 아이패드보다 30% 이상 얇아졌고 무게도 전 제품보다 15%가량 줄었으며 전·후면 듀얼 카메라를 장착했다. /연합뉴스

은행권 대출 모집수수료 2금융권 뺨친다

대출금리 인상 도미노…금융당국 대응 절실

일부 은행이 제2금융권과 맞먹는 수준의 높은 모집수수료를 내세워 고위험 대출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결국 고객의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7개 은행의 대출 모집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SC제일은행의 신용대출 모집수수료는 평균 3.6%로 집계됐다.

가령 대출모집인이 1억원 어치를 유치하면 은행으로부터 360만원을 수수료로 받는 셈. 지역마다 수탁법인을 두고 대출모집인을 고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경우는 법인과 모집인이 수수료를 나눠 갖는다.

은행권 평균 모집수수료가 0.5%인 것과 비교하면 SC제일은행의 수수료는 웬만한 제2금융권 회사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SC제일은행의 모집수수료가 월등히 높은 것은 '고위험 고수익' 대출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대출자 중에는 7~8등급 저신용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가 연 20%를 훌쩍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출모집인의 '활약'은 외국계 은행에서 두드러져 SC제일과 한국씨티 등 두 외국계 은행의 대출 중개인은 2722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8조6000억원의 대출을 두 은행에 중개해 전체 은행권 대출 모집의 42%에 해당했다.

부산지역에 있는 외국계은행의 한 대출모집인은 "수탁법인이 중간에 가져가는 수수료를 빼면 실제 손에 남는 돈은 몇 푼 안 된다"며 "SC제일이나 한국씨티 등 외국계는 말이 좋아 은행이지, 사실상 비은행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은행이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내 영업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모집인의 실적 경쟁이 지나쳐 부당한 모집 행위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